

# 짧은 시간, 긴 사연들... 편집일지로 본 《한국현대사 60년》 출간 과정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60년을 다룬 책

글\_조원식(역사비평사 기획실장)

올해 3월 9일, 정해구 선생님이 전화로 제안을 해왔다. “책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역비(역사비평사)가 어떨지 싶군요. 곧 민주화운동 20주년이 되는데, 대중에게 그 뜻을 다시 알리고 나눌 수 있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아니고, 서중석 교수님이 집필하시는 겁니다. 주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고요.’” 정 선생님이 사업회 내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3월 12일, 일군의 손님들이 출판사로 오셨다. 어라, 저분은... 어수갑 선생?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가 나왔을 때 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다. 사업회의 책임 연구원으로 있다며 이 책의 기획의도와 부수적인 팁을 전해 주었다. ‘20주년’이라는 상징,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책’, 필자가 서중석 교수라는 점 등을 메모하면서 역비와 맞짱했다는 판단을 가졌다.

3월 13일, 출판사 내부회의에서 출간을 결정했다. 역시 내부에서도 출간 일정이 관건이라는 우려였다.

3월 26일, 비가 추적이는 가운데 계약서를 들고 중구 정동에 있는 배제빌딩을 찾아갔다. 계약 이후의 실무 작업은 이호룡 박사가 맡았다. 그는 《한국의 아나키즘》을 쓴 전직 아나키스트이다(지금은 어떤지 아직 묻지 못했다). 내가 아는 아나키스트들은 대개 첫인상은 다 호인이지만, 일하는 데는 까다롭기 그지없다. 예상대로 조목조목 섬세한 우려와 요구가 쏟아졌다. 아무튼 도장은 찍었다. 계약서 조인을 마친 다음, 돌아오는 길은 일부러 덕수궁 대한문 쪽으로 잡고 산보하듯 걸었다. 우산을 든 채 시청광장을 바라보면서, 1987년의 쾩한 태양과 술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하는 이 책을 걱정했다. 문득 목이 말랐다.

4월 4일, 계약서의 일부조항에 문제가 드러났고, 부랴부랴 수정작업을 하느라 종종거렸다. 만사란 늘 그렇게 쉽지 않

다. 이미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서 필자, 사업회, 편집자, 출판사 모두 반박자 어긋나고 또 다시 바로잡고를 반복했다. 다만 다행히도 필자는 시원시원했고, 원고는 벌써 2교에 들어간 상태였다.

4월 10일, 이호룡 박사가 본문에 넣을 사진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이트에서 골라주었다. 몇 컷은 좀 크게 넣고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사진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고민했다. 원래의 출발이 ‘손에 잡히는 작은’ 모양새를 가진 책이었기에, 사이즈보다는 텍스트와 잘 결합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필자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몇 컷의 사진을 바꾸기도 했다. 이 지면을 빌려, 사업회 사이트에 사진을 제공한 경향신문사에게 미처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점과 서두르느라 관련에도 명시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 양해의 큰절을 올리고 싶다. 4월 18일, 세 번째 제목회의를 마쳤건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한국현대사’를 축으로 놓고 ‘간략한’, ‘간결한’, ‘한 손에 잡히는’, ‘시민을 위한’, ‘백락으로 읽는’ 등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4월 30일, 몇 가지 곡절을 거쳐 ‘한국현대사 60년’으로 제목이 정해졌다. 민주화운동 ‘20주년’, 필자의 ‘40년 연구’, 건국 후 ‘60년’이란 다소 작위적인 리듬조차 호 못했다.

5월 25일, 마침내 제본소에서 책이 왔다. 원래 출간 약속일 5월 30일까지여서 처음부터 5일의 여유를 두고 역산해서 작업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5일을 앞당겨 책이 나왔다. 짧은 시간, 긴 사연들, 그렇게 작업이 모두 끝났다.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60년을 다룬 이 책은 과연 또 어떤 책으로 기억될 것인지. 책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큰 절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